

4/ 3 /16

설교 제목: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복음:28:16-20

(마 28: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절관주 마 26:32

(마 28: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에 이어 마태 복음 28 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지상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 또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 위임 명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마 28: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 28: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 열한 제자가

저자 마태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제외한 열 한 제자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근거로 이때 열 한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500 여 형제들을 다같이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태는 단지 열 한 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다는 것은 물론 이곳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출발지였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 것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부유한 자, 학식이 있는 자들이 모여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로 택했다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마태는 어느 산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산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변화산(다보산)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변화산은 전에 예수님이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왕이 되셔서 지상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경배한다는 말은 '앞에 나아가다'와 '입을 맞추다'가 합성된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천국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선포되는 주체인 그리스도, 왕이 되신 것입니다.

###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무리 중에는 500 여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고 볼 때에 의심하는 자들은 그들 중에 일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 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의심을 했었지만 이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난 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이 그룹 중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불신한다기 보다는 머뭇거리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일은 저자 마태가 이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태의 태도로 보아 그는 세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룹과 의심하는 그룹 두 그룹이 상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당신이 추후에 보내 주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가 제자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따라 그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을 고깃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자연계와 영계를 제어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기는 했지만 그러한 권세는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권세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본래의 권세를 다시 부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세를 되찾아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여 행사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대사 자격을 부여하고 위임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라고 위임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찾아 가라고 선교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를 통하지 않고는 확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이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헤이티로 북한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 수 있으면 말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예루살렘인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처음에는 갈릴리 주변을 기점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경을 점점 넓히시고 부활 이후에는 이방까지 전도하셨습니다.

###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은 영어로 all nations 입니다.

모든 나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 '제자로 삼아'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란 예수님으로부터 단지 가르침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일, 심지어 가족까지 뛰어 넘어 주님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다’는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와 ‘씻다’라는 두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세례가 지니는 두가지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담그다’는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례 의식을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씻다’는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의미와 죄 씻음의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참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의식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은 세상을 향한 형식적인 공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고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먼저 그 아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한 본체를 이루신 한 하나님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세례는 마땅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져야 하는 것입니다.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르침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대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사였으나 부활이후 가르침의 사역이 모든 제자들에게 확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란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혼자서 살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지상 명령, 대 위임 명령은 사도들의 초석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 나아가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